

경기, 굴뚝자동측정기기로 대기오염 물질 관리

경기도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원격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 SYS : Clean + System)란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관리 운영체제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로 측정해 사업장측정기, 환경관리공단, 경기도 환경오염상황실이 온라인으로 연결, 오염도를 24시간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내에는 삼성전자, 영통소각장 등 80개 사업장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2007년 6월말까지 추가로 오산 LG전자, 파주의 엘지필립스 엘시디 등 82개 사업장에 대해 확대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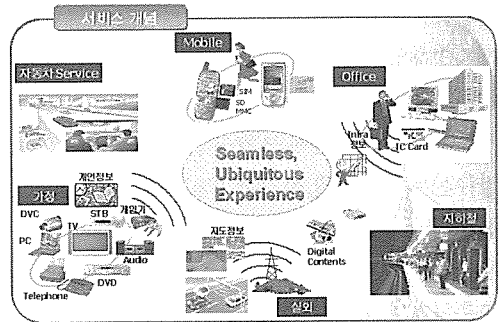
경기도는 2007년 6월 이후 대기 1~3종 배출사업장 1,437개중 11.3%에 해당되는 162개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제를 갖 추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공무원의 현장 지도방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한 정확한 자료관리로 대기질 총량규제 등 도민에게 신뢰성 있는 대기환경보전정책을 구현, 사업장 대기관리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의 경우 30분 단위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가 결정되어 배출허용기준 초과누적으로 인한 조업정지, 허가취소 및 폐쇄의 행정처분을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개선명령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굴뚝자동측정기를 통해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중심에서 자율중심으로 유도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기업은 배출오염물질 상태를 상시확인할 수 있어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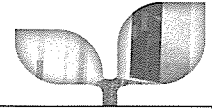
지하철내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 사장 강경호)는 1~4호선 전역사에서 무선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인터넷 설비(WiBro)를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와이브로(WiBro)는 정지는 물론 이동 중에도 우선 초고속 수준의 데이터 및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한 무선 인터넷 시스템이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역사와 이동중인 전동차 내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케이티와 SK텔레콤(주)와 함께 2007년 1월 서비스를 목표로 2006년 11월부터 공사를 착수했다.

이 설비가 구축 완료되면 영상통신, 동영상, 사진, 멜로디 등 메시지 전송서비스가 가능한 MMS서비스, 단문메세지 서비스, 채팅, 엔터테인먼트, 금융, 증권, 개인방송, 개인맞춤서비스



등이 가능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의 허브, 두바이’ 부산과 동반자 시대 연다.

중동의 비즈니스 중심도시 두바이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부산이 지난 13일 오전 두바이 현지에서 자매도시 협정에 서명하고 도시간 교류의 동반자 시대로 들어섰다.

두바이는 1985년, 중동에서 처음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중동의 중계무역항으로 발돋움한 이후 중동의 허브 단계를 넘어 이제 세계의 비즈니스와 관광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의도의 10배에 달하는 3,000만평 규모의 제벨알리 자유무역지역에는 5000여개 다국적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부산시는 그 동안 올림픽 총회 유치 등 주요 국제대회 유치에 있어 중동지역 국가와의 협력 관계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향후 동서 부산권 개발에 있어 중동 지역 투자자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중동에서 부산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시정의 주요과제로 대두된 바 있다.

그리고, 부산에는 이미 두바이의 DPW(두바이항만공사, Dubai Port World)가 부산 신항만(주)에 대주주로 투자하고 있고, 부산의 반도건설은 두바이 비즈니스 베이에 연 6만평, 3억 5천만불 규모의 비즈니스 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자매결연 이전부터 부산과 두바이간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4월 국제관계자문대사를 비롯한 실무방문단을 두바이에 파견, 후세인 나세르 루타흐(Hussain Nasser Lootah) 시장대행과 면담을

갖고 기존의 양도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되 올해 하반기에는 두 도시의 자매결연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해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번에 허남식 시장을 비롯한 시관계자와 부산상공회의소 신 정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10여명이 두바이시를 직접 방문하여 자매결연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對중동 지방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하계올림픽 유치 등 주요 국제행사 유치에 있어 두바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양도시 시장의 상호방문, 두바이 국왕의 부산 초청 등 상호 방문을 통해 인적 유대관계도 구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부산시는 실무적으로 두바이시 측과 교류분야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양 도시는 항만·물류투자, 영화, 문화 분야는 이미 상당한 교류협력 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부산항만공사(BPA)와 두바이 항만공사 DPW(Dubai Port World), 부산경제자유구역청과 두바이 제벨알리 자유무역지역 개발청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JAFZA)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부산국제영화제"와 "두바이 국제영화제(DIFF)"간 상호교류, 양 도시 예술단 상호교환공연 등 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박성효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0일 오후 4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대전시는 내년부터는 자전거도로 업무를 전담할 '자전거도로담당'을 신설하는 등 자전거 붐 조성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을 완료하고 분야별 추진계획과 실천과제를 수립,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학교를 초·중·고교 각 1개씩 선정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하고 자전거 지도 제작, 자전거의 날 운영,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구단지·둔산지구 등을 자전거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간선 전용도로망을 구축하고 생활권 대체 교통수단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근·통학 및 출퇴근로 등을 재정비하여 생활권 자전거 전용도로망을 구축하고 3대하천 전용도로와 상호 보완적인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원스톱 시스템화함으로써 건강과 레져, 여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갑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과 함께 점진적으로 공영자전거제, 자전거 면허제·등록제도 시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 붐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Green'과 'Blue'의 도시 인천

인천시는 'Green(녹지)'과 'Blue(친수공간)'를 위해 모두 6곳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내년부터 35억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물길을 내고 생태연못을 만든다. 또 공원 조성사업, 학교 공원사업,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등 신규 녹화 사업장에 습지 비오톱 등 수경시설이 적극 도입된다.

문학공원 장미원지구와 수봉공원 AID지구는 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해 친수공간이 추진된다. 특히 중앙공원 4지구 둔덕, 문학공원 장미원지구, 수봉공원 AID지역 등에는 인공폭포가 설치,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범지역을 우선 완료하고 점차 시 전역으로 수변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도심 친수공간과 실개천 조성사례로 일본의 도쿄도 에도가와구의 경우가 있다. 여름철 물놀이는 물론 자연 생태학습장으로도 대단한 인기다. 우리 주변으로는 가족 나들이 장소로, 연인들의 테이트 코스로 자리잡은 시청 앞 미래광장 수변공간을 꼽을 수 있다. 서울 강동구 강남대로변에도 인도 안쪽으로 분수와 물길이를 만들어져 있다.

○ 중앙공원 시청역 사거리 둔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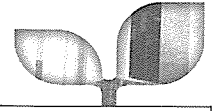


중앙공원 시청역 사거리 둔덕 현황



벽천, 계류 등 친수공간 조성 이미지

밋밋한 사거리 모퉁이, 한쪽으로는 지하철의 환기구가 불쌍사납게 우뚝 서있다. 중앙공원 시청역 사거리 둔덕의 경우 경관을 저해하며 공원 이용에 불편을 주던 옹벽과 둔덕 일부를 제거한 후 벽천, 계류 등 친수공간이 동선을 따라 설치



된다. 옹벽·석축 과 둔덕을 없앤 자리에는 목교와 공원진입로도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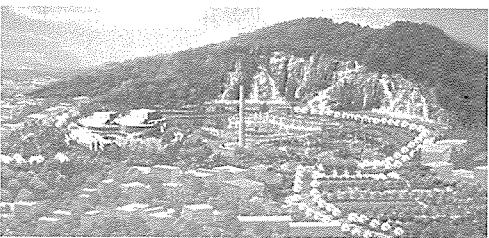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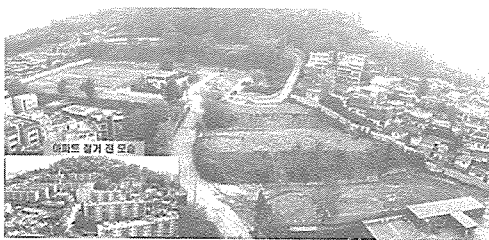
○ 문학공원 장미원지구 수경시설

문학공원 내 16만㎡에 대규모 장미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의 시화(市花)인 장미를 테마로 꾸며지며 다양한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마련된다. 장미원지구에는 생태연못(2,000㎡), 폭포(높이 42m 폭 100m), 실개천(길이 100m, 폭 1.2m) 등 수경시설과 야외회장, 휴게소, 야외결혼식장 등의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산책로도 함께 조성된다.

○ 수봉공원 AID지역 수경시설

최근 철거 작업을 마무리한 남구 도화동 AID 아파트 부지에 높이 30m, 폭 100m 규모의 인공폭포가 건설된다. 시는 1975년 지어진 도화동 AID 아파트 506채를 430여억원에 구입, 2만9000㎡(8,770평)의 아파트 부지를 뒷편 수봉공원과 함께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10년까지 절개지를 활용한 인공폭포, 도서관, 팔각정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계획이며 면적 960㎡의 수경 공연장도 마련한다. 시는 경인



고속도로에서 바라보이는 도심 속 인공폭포가 인천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가저

충청남도 에너지관리공단 대전충남지사(지사장 최창식)와 공동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식제고와 참여를 통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2시 천안시민문화회관에서 기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 촉진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절약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에너지절약 우수 실천사례 현상공모 입상자에 대한 시상 ▲부문별 최우수 수상자의 우수사례 발표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의 합리적 운전이라는 주제의 기술세미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완구 도지사는 치사를 통하여 "新고유가 시대에서 에너지절약은 국내총생산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상기 하면서, 현재 생활속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등 에너지절약운동이 범도민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 앞서 오전에는 도와 시·군,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 주부교실, 부녀회 등 25개 기관 및 단체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안 갤러리아백화점 앞에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준비한 온도계, 콘센트 등 에너지절약 홍보물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생활속의 에너지절약' 팸플릿 등을 배포하고 에너지절약 운동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